

악성종양을 동반한 염증성 근염 환자의 임상적 고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영미* · 신동혁 · 김진현 · 이윤종 · 이은봉 · 송영욱

염증성 근염 환자의 일부에서 악성종양이 동반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악성종양은 성별, 나이, 및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종양의 발생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198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와 신경과에 입원하여 근염을 진단받은 17세 이상의 환자들 중 Bohan과 Peter의 기준을 따라 definite와 probable의 기준에 부합되는 총 205명을 대상으로 악성종양을 동반한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염증성 근염 환자는 남자 55명(26.8%), 여자 150명(73.2%)으로 평균연령은 41.7세였다. 성별분포는 21세부터 30세 사이가 46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피부근염 87명, 다발성근염 63명, 중복 증후군 34명이었고 악성종양이 동반된 염증성 근염은 21명(10.3%)으로 피부근염 12명(57.1%), 다발성근염 9명(42.9%)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5.2세로 악성종양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1$ by t-test) 악성종양의 종류에는 위암 6명(조기 2명, 진행성 4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 3명(14.3%), 대장암, 간암, 림프종이 각각 2명(9.5%), 식도암, 인후두암, 상악동종양 및 침습성 흉선종이 각각 1명(4.8%)이었다. 악성종양이 근염과 동시에 진단된 경우가 10명(47.6%), 악성종양이 먼저 진단된 경우가 4명(19.1%), 염증성 근염이 먼저 발생한 경우가 7명(33.3%)이었다. 결론적으로 악성종양을 동반한 염증성 근염 환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높고 위장관 계열의 악성종양이 가장 많았다.

— Sun-146 —

대퇴골두 골괴사를 동반한 건선 관절염

포항 성모병원 내과, 방사선과*,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오동호*, 서재웅, 김종연, 김태권*, 윤원찬**, 김채기**, 송용호**, 최정윤**

건선은 구진 및 은백색의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흔한 만성 피부질환이다. 건선 관절염은 건선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관절염으로 빈도는 대개 건선을 가진 환자의 약 5-7%정도에서 발생한다.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대다수에서는 비대칭적인 소수성 혹은 다발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나, 때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대칭적 다발성 관절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건선 관절염에서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한 보고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자들은 특별히 스테로이드같은 약물 복용이나, 외상, 알코올 중독, 응고장애같은 골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68세의 여자 건선 관절염환자에서 발생한 대퇴골두 골괴사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7세 여자가 3개월전부터 발생한 좌측 피행보행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십여년전에 건선을 진단받았으며, 가족력상에서도 모친이 건선을 가지고 있었다. 수년전 부터는 다발성 관절통으로 고생을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검사한 이학적 검사에서 상체와 하지에 건선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우측손의 세번째 근위 수지관절과 우측발의 첫번째 족지관절의 소세지모양의 부종, 압통 및 좌측 고관절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혈액학적인 검사상, 류마티스인자는 5 IU/mL (정상: $< 20 \text{ IU/mL}$)로 정상이었으며, ESR 56 mm/hr (정상: $0-20 \text{ mm/hr}$), CRP 4.5 mg/dl (정상: $< 0.8 \text{ mg/dl}$), ANA는 음성으로, 건선 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손과 발의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괴사는 동반되지 않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좌측 고관절의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공명촬영 사진상에서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부위에 무혈성 골괴사를 동반하고 있었다(ARCO stage II). 소염진통제를 비롯한 대증요법에도 환자의 좌측 고관절 통증은 완화되지 않아 fluoroscopy guide하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실시한 후 현재 특별한 통증 및 보행장애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중이다.